THE HERALD of Christian Science
informal translations from the publications of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끈질긴, 치유하는 기도

Persistent, healing prayer

린 잭슨(Lynn Jackson)

크리스천 사이언스 센티널 (Christian Science Sentinel) *2011 년 9 월 12 일*

마가렛 태쳐는, 언젠가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는 쉽다, 그러나 당신은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인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그 인용문을 좋아한다 – 그것은 나로 하여금 매사에, 특히 끈기 있게 추구하여야 할 일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끈질김은 튼튼하고 강한 영적 근육을 만들어준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사 할수록, 그는 더욱 강하게 된다. 이전에는 어려웠을 일들이 더 쉬어지게 되고, 크고 무섭게 보이던 것들을 더 강한 확신과 영적 권능을 가지고 대면하게 된다. 이것은 집요함, 끈질김을 요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를 배우고 실증을 계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동물자기론*(animal magnetism), 즉 선(善)이신 **하나님**과 반대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려 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는 능력이 없다, 지식이 모자란다, 또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절대로 치유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등을 믿도록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슬며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그릇된 암시들에 심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우리는 유일한 신성의 **원리**이신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그것들에게 대항하여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법에 기초를 둔 기도는 어떤 그릇된 믿음이 한 일이라도 그것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하다. 끈질김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기억하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의 효능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주장이 완전히 잠잠해 질 때까지 배격해야 한다.

나는 이를 종종 집에 페인트 칠하는 것에 비유한다. 페인트 작업은, 때때로 여러 겹의 칠을 해야 마무리 된다. 그러나 페인트 겹은 하나하나 더해져서 완성품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헛된 것이 아니다. 이제 당신이 유능한 칠장이를 고용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을 열심히 지켜보았다고 가정하자.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집에 달걀들을 던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당신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겠는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라고 묻겠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는 그 달걀을 던진 사람을 추궁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이다. 왜인가? 칠 작업의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훌륭한 노력의 결과가 보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바로 그 달걀을 던진 사람이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이것이 바로 동물자기론, 즉 달걀을 던지는 자가 하는 짓이다. 당신이 치유를 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것 등의 암시들은 일종의 부정요법, 즉 나쁜 요법의 한 형태이다. 이런 잘못된 영향력을 받아들이면 당신이 집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함들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든다. 그것은 생각을 선(善)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과학적 기도의 결과들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한다.

치유에 관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큰 이점은 달걀을 던지는 자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격적인 심적 암시, 즉 "달걀들"도 실제가 아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가 효능이 없었다고 아무리 우길지라도, 우리는 이런 주장들이 완전히 잠잠해 질 때까지 배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당신의 기도의 끈질김은 승리를 보장한다. 우리는 의식(意識)에게 오는 그릇된 믿음을 무찌르고 그것을 **진리**로부터 나온 올바른 아이디어로 대체할 때, 그것이 치유의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가며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 즉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울 뿐이지만, 구원에 관한 수수께끼 전체를 한번에 다 풀어야 치유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강건한 마음가짐으로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가 그 배경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치유를 할 수 없다 거나,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다 거나, 또는 그것이 번복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반대하는 억지에 대항하여 우리의 영적 영역을 지킬 수 있다. 동물자기론은 더딘 치유, 치유불가능성, 회복, 재발, 반전, 또는 확실치 않은 결말 등의 편을 들어 우길지 모르지만, 그것의 암시들은 그릇된 것이고, 신성의 **마음**이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우리는 거짓들을,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히 하나라는 우리의 깨달음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그릇된 결론들을 파괴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을 향해 내려오는 방법이 이를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다음과 같이 그분의 방법을 설명했다: "예수님은 완전함과 그것의 가능성들에 걸 맞도록 성숙하기 위해, 시간의 순환 주기, 생각의 순환 주기도 필요치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래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보라, 너희 밭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질적 과정이 아닌 심적 과정들로 추수를 거두어 들이라고 하셨다."(Unity of Good, 11~12 쪽)

동물자기론이 치유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도록 허용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딸이 경험했던 치유를 통해 이것이 진실임을 알았다. 치과병원을 방문했을 동안 엑스레이 사진이 아래 앞 이빨 두 개가 잇몸 안의 뿌리 부분에서 서로를 향하며 누워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후(豫後)는 이 이빨들을 위로 향한 제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선(善)의 단일성(Unity of Good)으로부터의 이 기사 안의 아이디어들을 사용하여, 나는 끈질기게 기도하였다. 나는 신성의 **원리**가 경험의 모든 국면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을 향해 내려오는 방식으로, 즉 신성의 **원리**로부터 작업하였다. 나는 엑스레이에서 본 형상이 나의 의식 안에서 고착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반대로, 엑스레이 사진과 그 예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의도와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나의 영적 이해와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나는 물질이 나의 기도의 전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동물자기론이 치유를 어떤 식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두 개의 이빨이 제대로 나와야 할 자리로 뚫고 나왔다.

우리는 어떤 병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이 없다거나 또는 그 문제가 치유되려면 더 배워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생각에 오는 이러한 공격적인 암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마음이나 필멸적인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과학에 대해 더 배우고 그것의 진리들에 깊이 파고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미 확언하는 진실들이 인간적 상황에 대해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수해야만 한다.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을 향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창조물인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의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하고, 신속하며, 완벽한 치유를 방해하는 한가지 분명한 실수는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을 향해 일하지 않고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을 향해 일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진행방법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을 향해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결정할 때, 물질적 상황이나 신체적 문제를 보도록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움의 방법으로나 치유의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은 정확하지 않다.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을 향해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물질과 그것의 불평을 가지고 시작한 다음 그것을 영적인 무엇으로 변환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디 여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물질은 명제의 오류이다. 전제의 이 오류는 그것이 들어가는 모든 명제를 오류의 결론으로 이끈다"(*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 277 쪽). 그녀의 방법은 물질로부터 시작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형이상학적 전제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위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향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창조와 사람, 그리고 그들의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부터 시작함을 의미한다. 우리 대부분은 성공을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이론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놀랍게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정 반대의 방법을 생각하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영적 성장과 진전이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이 필연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생각의 전념을 요구한다. 에디 여사는, "생각을 정직한 성취에 전념할 때 그 성취가 가능해진다."(*과학과 건강* 199 쪽)라고 쓰고 있다. 결국 그것은 단순하게 물리적 육신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 우리의 **그분**과의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의식하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육신적인 것은 항상 영적인 것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건전한 윤리가 영적인 마음가짐의 길로 인도한다.

에디 여사는 이러한 "위쪽으로부터의" 배움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존재의 실재성과 질서를 그 **과학** 안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하나님**을 실재하는 모든 것들의 신성의 **원리**로 파악함으로써 시작하여야 한다." (*과학과 건강*, 275 쪽) 이 출발점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가르치는 그녀의 방법의 열쇠이다. 주목할 것은, 그것이 필멸의 마음이나 물질의 어떠한 요소도 포함하지 않으며, 오히려 존재하는 전체이며, 신성의 **원리**이신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하나님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이 출발점에서 물질은 절대로 방정식 안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소위 물질적 법칙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성의 원리의 법칙의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의 영적 깨달음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영적 성실성과 윤리가 지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디 여사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적인 숙달은 요구되지 않지만, 건전한 윤리의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과학과 건강*, x 쪽)고 쓰고 있다. 건전한 윤리가 영적인 마음의 기질로 가는 길에 우리를 올려 놓는다. 지적 숙달은 성실로 가는 길에 자주 방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배우고 영적으로 발전해갈 때 문자와 영이 병행하지만, 둘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패배하게 된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빼놓고는 어떤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도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야고보서 4 장 8 절)고 가르쳐 이 방법을 확인해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즉 그분께 더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알게 된다. 그때, 이는 아무것도 신성의 원리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낄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잘못된 믿음도, 어떤 소위 물질적 법칙도, 어떤 소위 존재나 권능도, 어떤 의학적 이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현존, 그리고 권능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를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고 완전한 채로 유지하실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시며, 우리가 그 창조인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심정과 모든 혼과 모든 마음으로 신성의 원리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현존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먼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치유를 발견한다.

린 잭슨은 텍사스주 루복에 사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프랙티셔너이며 선생이다.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